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0.09.18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CX084]

| 투자 위험 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 | | | | | 피델리티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p>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까지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하며, 모두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외국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금리 및 신용도 등의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위험 및 재간접투자 위험, 신흥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신흥시장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이 요약정보는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투자신탁인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모두투자신탁 H(채권-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미달러채권펀드(Fidelity Funds - US Dollar Bond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미달러 표시 채무성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연, %) | 판매보수 (연, %) | 동종유형 총보수 (연, %)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 납입금액의 0.60%이내 | 0.55 | 0.40 | 1.05 | 182 | 310 | 445 | 735 | 1,597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없음 | 0.95 | 0.80 | 1.45 | 164 | 336 | 517 | 906 | 2,063 |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납입금액의 0.30%이내 | 0.35 | 0.20 | 0.67 | 132 | 239 | 352 | 595 | 1,315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없음 | 0.55 | 0.40 | 0.97 | 123 | 252 | 388 | 680 | 1,547 |
| <p>(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 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형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수수료선취-온라인 (A-e)형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 해당사항 없음(미설정) | | | | | | | | | |

| 수익률) (세전기준, %) | | | | | | | | | | |
|--|--|--|------------|------------------|--------------|-------------------------|-------|-------|------|------------|
| 운용전문 인력 | (2020년 7월말 기준) | | | | |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재간접형-해외투자(60 형)) |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개)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 | 최근 2년 | | | | |
| 안종현 | 1970 | 본부장 | 26 | 41,744 | - | - | 11.89 | 10.83 | 6 개월 | |
| <p>(주 1)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주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p> <p>(주 3)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5) 운용경력년수는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 년간 주요 이력입니다.</p> |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람에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투자원금손실 위험 | |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 | | | | |
|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 |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국가위험 | | 모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 | | | | | | | |

| | <p>있습니다. 일부 국가 채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장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소득의 송환에 대한 제한이나 지연은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쿼터 등을 통해 국내 중국 고정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이 해당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환율변동 위험 | <p>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채산을 투자함에 따라 관련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채산의 가치 변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익과 재무건전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자산과 수익(income)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화 변동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수행하고자 하지만,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거래상대방 부채 등의 경우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헤지 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와 다를 수 있으며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table><tr><th>구분</th><th>환위험 관리 전략 세부내용</th></tr><tr><td>환헤지여부</td><td>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변동과 관련된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td></tr><tr><td>환헤지 방법</td><td>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td></tr><tr><td>목표 환헤지비용</td><td>모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비용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td></tr><tr><td>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td><td>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td></tr></table> | 구분 | 환위험 관리 전략 세부내용 | 환헤지여부 |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변동과 관련된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 | 환헤지 방법 |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 목표 환헤지비용 | 모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비용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구분 | 환위험 관리 전략 세부내용 | | | | | | | | | | |
| 환헤지여부 |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변동과 관련된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환헤지 방법 |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 | | | | | | | | | |
| 목표 환헤지비용 | 모투자신탁의 목표 환헤지비용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 | | | | | | | |
| 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 | | | | | | |
| 분산투자 관련위험 | <p>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
|--------------------------|--|
| 신흥시장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 파생상품투자 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재간접투자 위험 |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금리변동 위험 | 모투자신탁은 투자등급채권, 하이일드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해지위험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매입 방법 |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 방법 |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8 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 | 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과세 |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하며,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동일 투자신탁내 전환: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 | | |
| 집합투자업자 | 피델리티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3-0901)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idelity.co.kr (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60 조 좌 | |
| 효력발생일 | 2020 년 09 월 25 일 | 존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2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 <u>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u> ’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종류(Class) |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1년 5 개월 | |
| | | 수수료 후취 |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 | |

| | | | |
|--|----------|---------------|--|
| | | | 점입입니다. 따라서 약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1년 5개월 |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무권유 저비용(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랩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채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퇴직연금 (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개인연금 (PRS)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고액 (I) |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기관 (F) | 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계열사 자금(N)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각 종류(클래스)별 세부 가입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